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상기술, 세계를 선도할 길을 찾다” 국내외 전문가와 발전 방향 논의

- 항공기상청, ‘미래항공교통을 위한 대기경계층 기상 국제워크숍’ 개최 -

기상청 항공기상청(청장 유승협)은 9월 30일(수)부터 10월 1일(목)까지 서울에서 ‘미래항공교통을 위한 대기경계층 기상 국제워크숍(ABL(Atmospheric Boundary Layer)-AeroWind 2026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심항공교통(UAM) 운항에 필요한 기상기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항공기상청이 처음 개최하는 국제연수회이다. 강원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등 국내 연구진과 함께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NCAR), 덴마크공과대학교(DTU), 엠브리리들항공대학교,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등 세계적 연구기관 및 도심항공교통(UAM) 선도기업의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이 주로 운항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상 300~600 m 고도는 지형과 건물, 지표면 특성 등에 따라 바람과 난류 등이 복잡하게 변화하는 대기경계층에 해당해,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기존보다 높은 시공간 해상도의 기상정보가 요구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심항공교통 운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경계층의 특성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첨단 관측기술과 고해상도 수치모델링, 난류 예측 및 기상정보의 운항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첫날인 9월 30일(수)에는 도심항공교통(UAM) 운항고도에서 발생하는 바람과 난류 등 기상현상을 정밀하게 관측·분석·예측하기 위한 최신 기술

동향이 발표된다. 도심항공교통(UAM) 운항에 필요한 대기경계층 기상 정보와 연구 성과의 실제 활용성을 비롯해 복잡한 도시환경에서의 고해상도 대기모델링 기술 등이 소개된다.

둘째 날인 10월 1일(목)에는 전문가 집단토론을 통해 연구 성과의 실제 운항 활용, 첨단 대기경계층 관측, 난류를 직접 모의하는 고해상도 대기 모델링을 주제로 도심항공교통(UAM) 기상기술 과제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와 관측망, 고해상도 모델링 및 자료 활용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향후 연구개발과 국제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항공기상청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27.~'29.)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지역을 대상으로 도심항공교통 운항 지원을 위한 기상관측 및 예측 고도화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실제 운항 지원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유승협 항공기상청장은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정밀한 기상정보가 필요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도심항공교통 기상기술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된 내용을 우리나라 도심항공교통 기상기술 개발과 실증 운항 지원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 나아가 국내 도심항공교통 기상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미래항공교통을 위한 대기경계층 기상 국제워크숍' 관련 사진

담당 부서	항공기상청 차세대항공기상팀	책임자	팀장	임소영	032-222-3018
		담당자	사무관	박준혁	032-222-3048

붙임

'미래항공교통을 위한 대기경계층 기상 국제워크숍' 관련 사진



| ABL-AeroWind 2026 국제워크숍 참가자 기념촬영 |